

정전협정 50주년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6·25 참전용사 여러분,

그리고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를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6·25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며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하신 유엔군 전몰용사들의 영전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1개 참전국에서 오신 대표단과 참전용사 여러분께도 각별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전용사와 내외 귀빈 여러분,

6·25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3년 1개월 동안 무려 400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1천만 이산가족의 슬픔과 고통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피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어찌 한시라도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제막되는 기념 조형물은 자유와 평화를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는 우리 모두의 단호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0만 전몰용사들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마음,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화합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는 조금도 늦추어질 수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마감하고 화해와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전몰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21개국 참전용사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민들은 여러분의 헌신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 12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남북분단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성숙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는 의지만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비롯한 우방들과의 협조도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국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생의 길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와 국제사회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저와 우리 국민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1개 참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평화와 우정의 인사를 전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